

## KT, NC 5연패 수렁에 몰아넣어... '이적 첫 선발' 니퍼트는 5이닝 4실점

등록 2018.04.11 22:31:13



【서울=뉴스시스】KT 위즈 더스틴 니퍼트. (사진 = 구단 제공)

【서울=뉴스시스】김희준 기자 = KT 위즈가 NC 다이노스를 5연패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KT 이적 후 첫 선발 등판에 나선 KBO 리그 최장수 외국인 선수 더스틴 니퍼트는 아쉬운 투구를 펼쳤다.

KT는 11일 마산구장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NC와의 경기에서 홈런 두 방을 포함해 장단 21안타를 몰아친 타선을 앞세워 12-4로 이겼다.

이날 경기는 KT로 유니폼을 바꿔입은 후 첫 선발 등판에 나서는 니퍼트와 첫 대만 출신 외국인 선수로 KBO리그에 연착륙한 왕웨이중의 신구 특급 외국인 투수의 선발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두산에서만 7년을 뛴 니퍼트는 지난 시즌을 마치고 두산과 재계약에 실패한 후 지난해 연봉(210만 달러)의 절반인 100만달러를 받고 KT 유니폼을 입었다.

스프링캠프에서 어깨 통증을 호소한 니퍼트는 지난 8일 수원 한화전에 구원 등판해 컨디션을 조율했고, 이날 이적 후 처음으로 선발 등판에 나섰다.

올 시즌 KBO리그에 데뷔한 왕웨이중은 앞선 3경기에서 패배없이 2승 평균자책점 1.71을 기록하며 특급 신인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

니퍼트는 5이닝 동안 6피안타 4실점으로 부진했다. 삼진 5개를 슈아냈으나 3개의 홈런을 맞으며 흔들렸다.

왕웨이중은 야수들의 잇단 실책 속에 5이닝 10피안타(1홈런) 5실점(3자책점)으로 아쉬운 투구를 했다. 삼진 2개를 잡는 동안 볼넷을 3개나 내주며 KBO리그 데뷔 이후 최악의 투구를 한 왕웨이중은 첫 패(2승)를 기록하게 됐다.

니퍼트는 타선의 지원 덕에 아쉬운 투구를 하고도 시즌 첫 선발 등판에서 승리 투수가 됐다.

KT 타선이 대폭발했다. 8번 타자 이해창은 홈런 한 방을 포함해 5타수 4안타 4타점 2득점으로 타선을 이끌었다. 5, 6번 타자로 나선 유한준과 황재균이 5타수 3안타 1타점 1득점, 5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으로 중심타선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리드오프 심우준이 6타수 4안타 1타점 1득점으로 밥상을 잘 차렸다.

NC전 3연승을 달린 KT는 9승째(6패)를 올려 단독 3위가 됐다.

반면 5연패의 수렁에 빠진 NC는 7패째(8승)를 기록해 공동 3위에서 공동 4위로 밀려났다.

NC는 1회말 리드오프 박민우가 번트안타로 출루한 뒤 타석에 들어선 김성욱이 니퍼트를 상대로 좌중월 투런포(시즌 3호)를 작렬해 2-0으로 앞섰다.

3회초 심우준의 안타와 도루, 상대의 실책과 윤석민의 볼넷으로 1사 만루를 만든 KT는 유한준의 땅볼 때 나온 NC 유격수 노진혁의 포구 실책으로 2, 3루에 있던 멜 로하스 주니어와 심우준이 모두 홈인, 2-2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4회 선두타자 이해창이 좌월 솔로포를 때려내 3-2로 역전했지만, NC도 선두타자 재비어 스크릭스(시즌 3호)와 나성범(시즌 2호)이 연속 타자 홈런을 쏘아올리면서 4-3으로 다시 승부를 뒤집었다.

KT는 금세 리드를 빼앗았다. 5회 황재균의 2루타와 박경수의 볼넷, 이중도루로 만든 2사 2, 3루의 찬스에서 이해창이 2타점 좌전 적시 2루타를 날려 5-4로 역전했다.

6회 1사 후 강백호가 좌월 솔로포(시즌 5호)를 작렬해 1점을 더한 KT는 이후 윤석민, 유한준의 연속 안타로 만든 2사 1, 2루에서 황재균이 우중간을 꿰뚫는 2타점 적시 3루타를 날려 8-4로 점수차를 벌렸다.

KT는 9회 이진영의 2루타와 이해창의 적시타를 엮어 1점을 더했고, 이후 무사 1, 2루에서 심우준이 적시타를 뽑아내 10-4까지 달아났다. KT는 이후 1사 1, 3루에서 로하스와 오태곤이 연달아 적시타를 날려 2점을 추가,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대구=뉴스시스】두산 김재호.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는 두산 베어스가 삼성 라이온즈에 7-6으로 역전승을 거뒀다.

6연승을 질주한 두산은 시즌 11승째(3패)를 올려 단독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켰다.

두산 타선은 5, 6회 3점씩을 뽑아내며 집중력을 선보였다. 김재호는 역전 3점포를 터뜨렸고, 전날 경기에서 비신사적 행위를 해 논란에 휩싸인 양의지는 5타수 2안타 2득점으로 제 몫을 했다.

유희관은 5⅓이닝 8피안타(1홈런) 5실점으로 아쉬운 투구를 했지만, 타선 지원 속에 시즌 첫 승을 따내는데 성공했다.

이들 연속 패배한 삼성은 10패째(5승)를 당해 공동 8위에서 9위로 내려앉았다.

6회초 등판해 1이닝 2피안타(1홈런) 3실점을 기록한 최충연은 패전의 멍에를 썼다. 시즌 첫 패(1승)다.

선발 유희관이 경기 초반 흔들려 0-5로 뒤졌던 두산은 3회 김재환의 적시 2루타로 1점을 만회했고, 5회 김민혁의 2타점 적시 2루타와 정진호의 적시 2루타로 3점을 추가해 4-5로 추격했다.

두산은 6회 김재환의 볼넷과 양의지의 안타, 김재환과 양의지의 도루로 만든 2사 2, 3루에서 김재호가 왼쪽 담장을 넘기는 3점짜리 아치(시즌 2호)를 그려내 7-5로 승부를 뒤집었다.

두산은 9회 마무리 투수 김강률이 1사 후 이원석에 솔로포(시즌 3호)를 맞아 1점차로 쫓겼으나 신인 곽빈을 투입해 승리를 지켰다. 팀이 7-6으로 쫓긴 9회 1사 1루 상황에 등판한 곽빈은 ⅓이닝 1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하고 프로 데뷔 첫 세이브(1승)를 품에 안았다.

롯데 자이언츠는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장단 17안타를 몰아친 타선을 앞세워 12-0으로 완승을 거뒀다.

이들 연속 넥센을 제압한 롯데는 시즌 첫 연승을 달리며 3승째(11패)를 따냈다. 순위는 여전히 최하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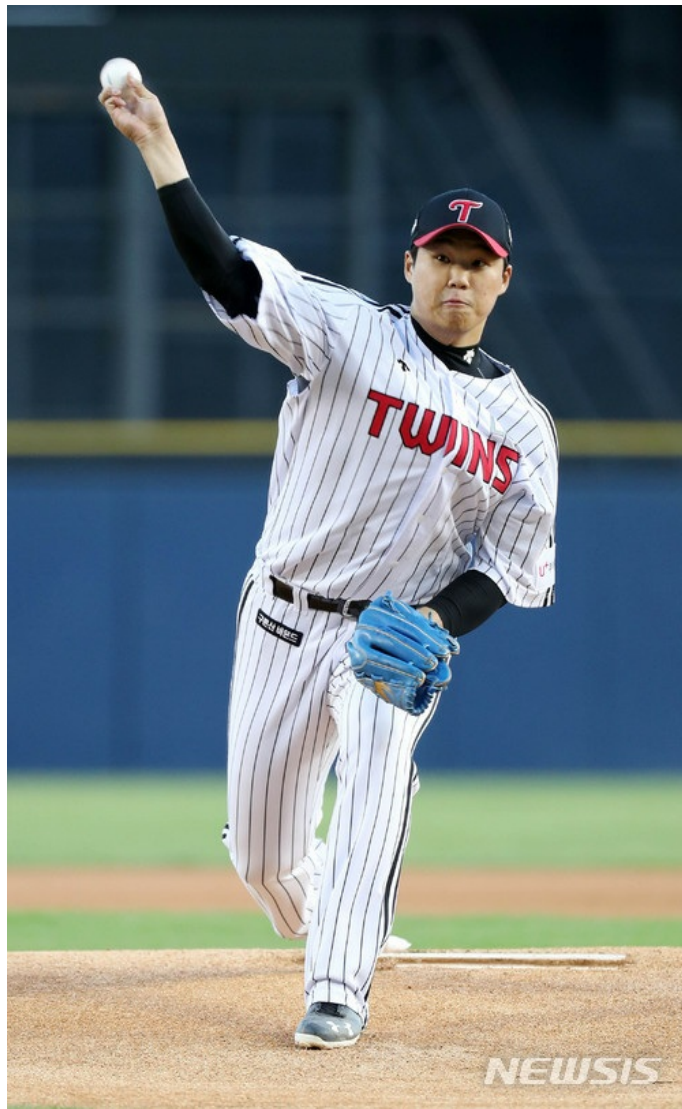
선발 투수 송승준이 왼 허벅지 근육에 통증을 호소하며 1⅓이닝(무실점) 만에 강판됐지만, 불펜진이 줄줄이 무실점 투구를 선보였다.

진명호는 송승준의 뒤를 이어 급히 마운드에 올랐음에도 3⅓이닝 동안 6개의 삼진을 숙아내며 무안타 무실점으로 쾌투를 펼쳤다. 진명호는 시즌 첫 승(1패)을 올렸다.

오현택과 구승민, 박시영, 노경은도 각각 1이닝씩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최근 부진한 이대호가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된 가운데 대신 4번 타자로 나선 이병규가 3타수 2안타 2타점 2득점으로 활약했다. 3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전한 채태인은 4타수 3안타 3타점 2득점으로 맹타를 휘둘렀다.

2번 타자 손아섭이 3타수 2안타 1볼넷 1타점 3득점으로 밥상을 잘 차렸고, 신본기가 5타수 3안타 4타점으로 하위타선의 핵 역할을 했다.



【서울=뉴스시스】 추상철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SK와이번스 대 LG트윈스의 경기. LG 선발투수 김대현이 역투하고 있다. 2018.04.11. scchoo@newsis.com  
5연패의 수렁에 빠진 넥센은 9패째(7승)를 기록했다.

4½이닝 8피안타 5실점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 넥센 선발 에스밀 로저스는 시즌 첫 패(1승)를 당했다. 넥센 타선은 롯데 마운드를 상대로 2안타를 치는데 그쳤다.

잠실구장에서는 LG 트윈스가 우완 영건 김대현의 호투를 앞세워 SK 와이번스를 3-0으로 물리쳤다.

김대현의 호투가 단연 빛난 한 판이었다. 김대현은 7이닝 동안 2개의 안타와 1개의 볼넷만을 내주고 SK 타선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삼진은 4개를 슈아냈다.

'인생투'를 선보인 김대현은 시즌 첫 승(1패)을 품에 안았다.

타선에서는 유강남과 박용택이 흥런 한 방식을 때려냈다. 유강남은 4회말 선제 솔로포(시즌 4호)를 쏘아올렸고, 박용택은 팀이 2-0으로 앞선 6회 선두타자로 나서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시즌 1호)을 작렬했다.

정찬현은 팀이 3-0으로 앞선 9회초 마운드에 올라 1이닝을 1피안타 무실점으로 틀어막고 시즌 3세이브째(1승 1패)를 챙겼다.

SK전 3연패에서 벗어난 LG는 6승째(9패)를 따내 단독 8위가 됐다.

전날 승리의 상승세를 잇지 못한 2위 SK는 5패째(9승)를 기록했다.

SK 선발 문승원은 7이닝 7피안타(2홈런) 3탈삼진 1볼넷 3실점으로 호투했으나 빈약한 타선 지원 속에 시즌 첫 승 수확에 실패, 2패째를 떠안았다.

한화 이글스는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6-4로 이겼다.

3연승을 달린 한화는 7승째(7패)를 수확해 승률을 5할로 끌어올렸고, 7위에서 6위로 올라섰다.

테이블세터의 활약이 돋보였다. 리드오프 이용규는 4타수 3안타 3득점으로 공격 첨병 역할을 했고, 양성우가 3타수 3안타 2타점으로 뒤를 받쳤다.

한화 선발 윤규진은 4⅓이닝 7피안타(1홈런) 4실점으로 부진했으나 계투진이 호투를 펼쳐 재역전승의 발판을 닦았다.

팀이 3-4로 역전당한 5회초 1사 1루 상황에 등판한 송은범은 3이닝을 무안타 무실점으로 봉쇄하고 시즌 3승째를 수확했다.

한화가 6-4로 앞선 9회초 등판한 정우람은 삼진 2개를 곁들이며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4세이브째를 따냈다.

선발 정용운의 뒤를 이어 등판한 이민우가 3⅓이닝 4실점으로 흔들리면서 패배한 KIA는 7패째(8승)를 기록했다.

jinxiju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